

<사카모토가 죽었다.>

현재 : 30대 초반으로 현재 반장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과거 피아노 전공을 꿈꿨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그만둬야만 했다. 지금 일하는 작업장의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꿈을 잃고 본인이 무얼 하고싶은지 잊은채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의기소침한 성격이다.

정욱 : 나이는 현재와 동일. 현재의 작업장 동료이자 어릴적 친구로, 지금 일을 현재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이다. 반장의 신임을 받고있으며, 반장이 하는 일을 하기위해 배우는 중이다.

반장 : 현재가 일하는 작업장의 반장으로, 나이는 50대 초중반이다. 현재의 업무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를 못마땅히 여긴다. 꿈이 없어보이고 항상 무기력한 채 실수를 연발하는 현재를 보며 답답해 한다. 일을 못하는 현재를 답답히 여기지만, 그걸 빌미삼아 무폐이로 굴릴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채운다.

S#1 작업장 내부/낮

작업장 도구들 인서트. 망치질을 하는 반장과 바닥에 레미탈을 바르는 정욱의 손짓.

가쁜 숨을 내쉬며 바닥 타일을 옮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보인다. 이내 현재가 옮기고 있던 타일을 떨어뜨리고, 타일들이 와장창 깨진다. 소리를 듣고 나오는 작업반장과 정욱. 작업반장의 한숨소리와 차가운 정욱의 시선이 보인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구는 현재의 모습.

S#2 식당/낮

현재와 동료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음식점 내부에선 뉴스가 흘러나온다. 밥을 먹는 정욱 옆에 반장이 현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반장 : 내말이 뭔말인지 알겠냐? 좀 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해보라는거야 어?

현재 : (영혼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반장 : 너 이제 나이도 서른이고, 이 쉬운일도 못하면 나중에 뭐할려고 그러냐?

현재 : 죄송합니다.

반장 : 아니 죄송한게 아니라, 니가 걱정되니까 다 이런말도 해주는거야. 관심없으면 이런 잔소리

도 안한단 말이야 알아?

현재 : 네..

현재의 시선이 반장 뒤쪽 뉴스화면으로 향한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사망소식. 현재는 무심한척 다시 시선을 반장쪽으로 돌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듯 다시 시선을 뉴스로 향한다.

반장(V.O) : 니 친구 정욱이라도 좀 보고 배워라. 어? 친구로써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 정욱이는 이제 곧 시공도 하는데.. 야. 너 내말 듣고 있냐? 암마! 김현재!

현재가 반장의 말을 무시한채 뉴스를 바라본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뉴스 화면과 화면을 바라보는 현재의 얼굴 클로즈.

<사카모토가 죽었다.>

S#3 현재의 집 거실/저녁

Ins) 현재의 집안. 난잡하고 어질러진 집안이다. 여러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책상 위에는 먹고 남은 핫반과 도시락 쓰레기들이 보인다. 집안 풍경 너머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는 현재. 이내 곧장 침대로 향해 눕는다.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는 현재. 현재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사망 기사를 찾아본다. 기사들을 찾아보던 현재는 휴대폰을 내리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Cut to

점프컷) 무언가 찾는듯 어질러진 방을 뒤지는 현재. 여러 서랍들을 뒤지고 장농들을 열어본다. 이내 현재는 장농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상자를 발견하고 멈칫하는 현재.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낸다.

Cut to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는 현재. 상자 내부엔 콩쿨 수상 트로피와 상장, 피아노 악보집들이 보인다.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던 현재는 이내 상자 안에서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이 적힌 악보파일과 CD앨범을 찾아낸다.

S#4 과거 집 안방/낮(과거)

분주해 보이는 집안. 현재와 가족들이 짐을 싸고 있다. 현재가 자신의 상자에 피아노 악보집들을 넣고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이 적힌 악보파일과 CD앨범을 안쪽에 넣는다. 이내 콩쿨 수상 상장과 트로피로 상자를 채우는 현재. 상자를 채운 현재가 상자 뚜껑을 닫는다. 현재 뒷편으로 가족 한명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린다.

가족 1 : 이제 갈까?

S#5 과거 집 현관/낮(과거)

상자를 들고 현관을 나온 현재가 집 밖으로 걸어간다. 걸어가는 현재 뒷편으로 쳐다보는 가족들과 수근거리는 목소리들.

가족 2 : (속삭이며) 재가 현재야? 어우 많이 컸네

가족 3 : (속삭이며) 이제 한창 꽃필 나이인데.. 에휴 애만 불쌍한거지..

가족 2 : (속삭이며) 죽은 사람들한테 뭐라 할수도 없고.. 뭐 어찌겠어

무표정으로 상자를 들고 대문쪽으로 걸어가는 과거 현재의 모습.

S#6 작업장/낮

매치컷) 작업장에서 레미탈 포대를 옮기는 현재의 모습.

점프컷) 레미탈을 바닥에 내려놓는 현재. 이후 페인트 통에 담아 물을 붓고, 마루와 타일들을 옮기고 깔아놓는다.

S#7 작업장/낮

정욱이 바닥에 레미탈을 바르고 반장이 고무망치로 마루를 깔고 있다. 반장과 정욱 너머 뒷편에서 페인트통에 레미탈을 희석하고 있는 현재.

반장 : (망치질을 하며) 오케이. 야 마루 몇개 남았냐?

정욱 : 음.. 아마 12개 남았을겁니다. 현재야 마루 몇개 남았냐?

현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확인하러 간다. 마루가 2개 남아있다.

현재 : 두개 남았어.

정욱 : 어?

반장 : 뭐야 아까 50개 가지온거 아니야? 왜 갯수가 안맞아? 아까 마루 들고올라온 놈 누구냐?

현재 : 아.. 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반장 : 뭐?

정욱 : (반장의 눈치를 살피며) 현재야 내려가서 마루 10장 더 들고 올라와주라.

현재 : 어 알았어 미안.

현재가 작업장을 나간다.

반장 : (답답한듯) 아이씨 진짜..

S#8 작업장 앞/낮

쉬는 시간인듯 담배를 태우며 앉아있는 현재와 동료들. 현재는 동료들과 거리를 둔 채 앉아있다. 이내 장갑을 벗어 자신의 손을 확인하는 현재. 상처와 멍이 많이 보인다. 자신의 양손을 들어 펼쳐보는 현재.

S#9 포장마차 야외/저녁

늦은 밤. 현재가 반장, 정욱과 술을 마시고 있다.

반장이 정욱에게 술을 가득 따라준다. 이내 현재에게도 술을 따라주기 위해 술병을 건내는 반장. 현재가 다른생각을 하는듯 고개를 떨구고 멍을때린다.

정욱 : (눈치를 주며) 현재야.

현재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듯 술잔을 들어 반장의 술을 받는다. 현재의 술잔이 반쯤 채워졌을 즈음 술이 떨어진다.

반장 : 이새끼는 술자리까지 와서도 정신 못차리네.. 너 그럴거면 집에나 가 임마.

정욱 : 너 무슨일 있냐? 아까부터 뭘생각을 그렇게 하고있어.

현재 :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반장을 쳐다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장 : 그러지말고 뭔일 있으면 얘기라도 해 임마. 사람이 왜이리 사회성이 없냐?

현재 : 그냥 뭐 별건 아닙니다..

정욱 : 뭐야. 진짜 뭔일 있는거야?

현재 : 아.. 그냥... (잠시 망설이다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죽어서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반장 : 류이... 뭐?

S#10 거리/저녁

현재와 정욱이 밤거리를 걸어가며 대화를 하고 있다.

정욱 : 너 요즘 많이 힘드냐?

현재 : 몰라.

정욱 : 야 어떻게 주선해준 일자리인데, 좀만 더 적응해봐.

현재 : 그냥... 일이 나랑 좀 안맞는거 같은데

정욱 : 그런게 어딴냐. 그냥 먹고살려면 닥치고 하는거지. 너 맨날 그 소리 하다가 여기까지 온거 아니야. 이번엔 마음 다잡고 한번 끝까지 해봐. 이제 나이도 서른인데, 돈은 벌어야지.

현재가 침묵한다. 입을 다문 채 정욱과 걷는 현재 클로즈.

S#11 현재의 집/저녁

현재의 집안.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현재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내 곧장 침대로 향한다. 침대에 누워 본인이 꺼내놓은 상자를 쳐다보는 현재.

정욱(V.O) : 반장님 말 처럼, 한번 열정을 가지고 해봐 임마. 나는 이거 할거다. 이게 내 꿈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무슨일이던 못하겠냐.

Cut to

현재가 침대에 누워 류이치 사카모토의 CD앨범을 만지작 거린다. 이내 앨범 커버를 열어 CD를 꺼내 살펴보는 현재. 1996 류이치 사카모토라고 영어로 적혀있는 앨범.

S#12 작업장/낮

작업장에서 반장과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반장이 바쁘게 서류를 들고 장비 갯수를 파악하고 있고 현재가 말을 건다.

현재 : 반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돈이 아직 안들어와서요.

반장 : (능청떨며) 어? 아 그러냐? 알았다. 다음주까지 입금해줄께.

현재 : 저번주에도 그러셨잖아요.

반장 : (살짝 귀찮은 듯) 이번달엔 내가 돈 쓸곳이 좀 많았어서. 너도 알다시피 지금 계약중인 건이 죄다 입금이 아직 안됐잖냐. 좀만 기다려 줘라.

반장이 현재의 어깨를 톡톡탁 하며 전화를 받으며 프레임 아웃.

S#13 레코드 가게/오후

현재가 레코드 샵 내부에 있다. 잠시 둘러보다 CD플레이어를 발견하고 집어드는 현재.

S#14 들판/초저녁

한적한 들판에 서있는 현재. 손에 들려있는 CD플레이어에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을 넣는다. 이내 재생시키고 들판에서 음악을 듣는 현재. 현재가 눈을 감는다.

S#15 무대 위 피아노/실내(환상)

매치컷) 눈을감은 현재의 모습. 현재가 무대위에 있다. 천천히 눈을 뜨는 현재. 현재가 자신 앞에 펼쳐진 건반들을 바라본다. 이내 건반을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건반위로 올리는 현재. 현재의 손이 백건반 위에 올려진다. 현재의 손가락이 건반을 미세하게 눌렀을 즈음 어디선가 현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반장(v.o): 김현재! 야 김현재! 김현재! 김현재!

S#16 작업장 앞/낮

작업장 앞에서 담배를 태우며 눈을 감고 있는 현재의 모습. 이내 현재가 눈을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반장이 서있다.

반장 : 야 김현재! 너 안들어갈거야? 정신 안차려?

다시 정면을 응시한채 코로 거칠게 숨을 쉬는 현재.

S#17 포장마차/저녁

늦은 밤, 현재와 정욱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잔을 하며 술잔을 들이키는 두사람.

현재 : (잔을 내려 놓으며) 야 근데.. 내가 그렇게 폐급이냐?

정욱 : 또 왜 그러냐.

정욱이 대답을 회피하는 듯 마른 안주를 집어든다.

정욱의 반응을 보며 술잔을 채우는 현재.

Cut to

술잔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는 현재손 클로즈.

시간이 지난듯 테이블에 술병들이 쌓여있다. 취한 듯 앉아서 비틀거리는 정욱과 현재.

현재 : 야 너는 이거 왜하냐?

정욱 : 하다보면 재밌어.

현재 : 넌 그럼 이거 해서 목표가 뭐냐?

정욱 : 반장님처럼 돼야지. 나중에 내 이름으로 사무소 하나 차리고.

현재 : 반장.. 넌 반장이 그렇게 좋냐..

정욱 : 왜 그래 임마. 사람은 무뚝뚝해도 좋은 사람이야. 배울점도 많고. 열심히 하면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더라. 이번에 내 월급도 더 챙겨주고.

현재 : 뭐? 월급?

정욱이 헛기침을 하며 술잔을 채운다.

정욱 : (머쓱한듯) 아니 많이는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챙겨 줬더라고.

현재 : 그래..

현재가 생각에 잠긴듯 술잔을 바라본다. 술이 채워져 있는 술잔 클로즈

S#18 작업장/낮

매치컷) 페인트 통에 담긴 물이 보인다. 이내 옆쪽으로 레미탈 포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고, 페인트 통에 담긴 물이 흔들린다.

포대를 내려놓은 현재의 모습. 현재의 시선에 반장과 웃으며 살갑게 대화하는 정욱의 모습이 보인다. 둘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는 현재.

S#19 작업장/낮

현재가 반장과 둘이 이야기를 하고있다. 반장이 서류를 들고 분주한 듯 작업할 공구 깃수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 반장님 저 아직도 돈이 안 들어왔던데.. 제가 이번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반장 : 아 미안하다. 다음주엔 꼭 보내줄게.

반장이 귀찮은 듯 대강 현재의 말에 대답하고 마저 일을 한다.

현재 :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반장 : (하던일을 잠시 멈추고) 야 임마. 내가 안준다 그랬냐? 오늘 일당은 내가 끝나고 줄테니까 빨리 가서 일이나 해.

현재 : 아니 벌써 몇주째예요 이게.. 저번달에도 이래서 제가..

반장 : (하던일을 멈추고 서류를 내려놓는다) 하... 진짜. 야 넌 일도 제대로 못하는게 이런말은 아주 잘도 한다? 저번에 너가 깨먹은 타일들을 생각해. 그게 다 얼마짜린줄 알아? 나도 돈 없어. 왜 이리 보채고 난리야.

현재 : 정욱이한테는 돈 줬잖아요.

반장 : 뭐?

현재 : (언성을 높이며) 제가 모를것 같아요? 정욱이한테 보너스 줄 돈은 있고 저한테 줄 돈은 없

어요?

반장 : 야 김현재.

현재 : 됐어요. 돈 필요 없으니까 내일부터 그냥 안나오면 될거 아닙니까. 열정 가득한 정욱이랑
들이 알아서 잘 해보십쇼.

현재가 장갑을 벗어 던지며 뒤로 돌아선다. 뒤로 돌아서자 보이는 정욱. 현재가 정욱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 하다가. 이내 곧바로 작업장을 나가 버린다.

S#20 현재의 집/저녁

현재가 CD플레이어를 들으며 방에 누워있다.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전화. 반장에게서 걸려오는 전
화이다. 이내 반장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눈을 감는다. 이내 괴로운 듯 침대에서 뒤척이는 현재.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현재가 이내 침대에서 일어난다.

Cut to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현재.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 이내 문을 닫고 선반을 뒤적거리는 현재. 라
면봉투들이 비어있다. 현재가 라면 봉투를 집어서 꺼내자. 라면 한봉지가 떨어진다.

한숨을 쉬며 라면 한봉지를 바라보는 현재.

S#21 공원/낮

공원 벤치에 정욱과 현재가 앉아있다.

정욱 : 에휴.. 붕신아 좀만 참아보지

현재 : (착잡한 듯) 모르겠다.. 시발

정욱 : 내가 보낸 문자는 봤나?

현재 : 뭐 보냈는데?

정욱 : 지인 통해서 알아낸 자리야. 물류센터인데 직원 숙소도 따로 있고, 사람들도 괜찮아.
거리는 좀 멀지만.. 이제 너 일자리 알아봐주는것도 지긋지긋 하다.

현재 : 됐다.. 안갈래

정욱 : (언성을 높이며)야. 넌 알아봐준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냐? 너 그럼 앞으로 어떡할라

그래? 나이도 이제 서른이 넘었고 결혼은 안할거야?

현재가 침묵한다.

정욱 : (한숨을 내쉬며) 현재야.. 내가 뭐 너 심정을 다 아는건 아니지만서도.. 인생이 어떻게 원하는대로 흘러만 가겠냐. 제발 한번만 마음 다시 잡고 잘 해봐라.. 친구로써 진짜 부탁이다 현재야 응?

정욱이 조심스럽게 돈 봉투를 건넨다.

정욱 : (봉투를 건내며) 그리고.. 이거.

현재 : 뭐냐.

정욱 : 니 사정을 내가 모르냐? 이번달 생활비라도 이걸로 보태쓰라고 임마. 그리고 물류센터 빨리 연락줘야 하니까 내일중으로 확답 주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나 간다.

정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임 아웃.

현재가 떠나는 정욱을 바라보다 이내 옆에 돈 봉투로 시선을 돌린다. 현재 손에 쥐어진 돈. 봉투의 모습.

S#22 현재의 집/낮

분주해 보이는 현재의 집안. 정욱이 물건들을 옮기고 있고, 현재가 책상 위에서 상자에 물건을 넣고 있다.

상자속에 다시 옛날 물품들을 넣는 현재. 류이치 사카모토의 악보와 CD앨범을 넣다가, 이내 CD 앨범을 빼고 상자 뚜껑을 닫는다.

정욱 : 야 뭐야 그것도 가져가는거냐?

현재가 잠시 망설인다.

현재 : 어? 아 아니.

Cut to

현재가 쓰레기장에 상자와 다른 물품들을 버린다. 버려져 있는 상자 서서히 클로즈.

S#23 (피아노 학원/이른 아침)

이른 아침, 한적하고 허름한 피아노 학원. 문도 열지 않은 피아노 학원앞에 현재가 앉아있다. 이내 피아노 학원 원장이 학원 문을 열기 위해 다가오고, 이내 현재를 발견한듯 말을 건다.

원장 : 어떻게 오셨죠?

현재 : 아.. 그.. 혹시

현재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원장이 현재를 빤히 쳐다본다.

현재 : 저.. 기억 나세요?

S#24 (학원 내부/낮)

학원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는 원장과 현재. 테이블에 커피가 한잔씩 놓여있다.

원장 : (커피를 한모금 마신후) 너가 옛날 얼굴이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자칫하면 못 알아볼뻔했어.

현재 : 그런가요.

원장 : 현재 너가 중학교 때였나? 대학교수한테 레슨받으러 간다고 한 이후로 한번도 못봤었는데.

현재 : 그쵸. 한 10년도 더 넘었쵸. 아마.

원장 :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커피를 한모금 하고) 아직 피아노 하는거야?

커피를 마시다 잠시 멈칫하는 현재.

현재 : 네? (잠시 당황한듯 시선을 아래로 깔고) 아.. 네.

원장 : (환하게 웃으며) 그래? 그나저나. 여긴 갑자기 어떻게 찾아오게 된거야?

현재 : 아..그게.. (잠시 고민하는듯 하다가) 사카모토가.. 죽어서요.

원장 : (이상하다는 듯이) 응? 사카모토?

그때 원장이 현재의 손을 쳐다본다. 상처가 많은 현재의 손.

원장 : 어? 현재야 너 손..

현재 : (급하게 손을 책상 아래로 치우며) 별거 아니에요. 몇일전에 넘어졌어요.

원장이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하다.

원장 : 그래? (다시 환하게 웃으며) 온 김에 피아노라도 한번 쳐볼래?.

원장을 응시하는 현재의 얼굴.

S#25 (학원 내부 연습실/낮)

피아노 앞에 앉은 현재. 원장이 피아노를 세팅한다. 건반 덮개와 상부 덮개를 열며 용으로 건반을 닦는 원장.

원장 : (피아노 셋팅을 다 마치고) 자.

원장이 뒤로 빠진다.

피아노 건반을 가만히 쳐다보는 현재. 새하얀 건반들이 보인다.

현재 : (떨리는 목소리로) 기분이 이상하네요.

백색 건반을 손가락으로 훑다가 천천히 건반을 하나 눌러보는 현재.

피아노 소리가 울리자 현재가 살짝 놀란다.

현재가 원장을 돌아본다. 그리고 그저 지켜보고 있는 원장.

현재가 다시 피아노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내 고민하는듯 하다 건반을 하나하나 누르며 조심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연주한다.

어색한 듯 몇 마디씩 끊어 연주하는 현재. 이후 점점 정확한 박자를 찾고 몰입해서 연주하기 시작한다. 상처가 많은 손으로 건반을 하나하나 누르고, 진흙과 흙으로 더러워진 신발로 천천히 곡을 연주한다. 중반쯤 곡의 분위기가 반전될 때 암전.

개인적인 의견

1. 현재가 과거에 류이치 사카모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서사가 더 필요할것 같다.. (왜 굳이 류이치 사카모토인지?)
2. 명확한 사건이 아직도 없는것 같다...
3. 후반부 대사가 너무 많은것 같다. (이건 줄일 예정)
4. 현재가 마지막 피아노를 치러가는게 아직 너무 갑작스러운것 같다.